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받들듯 하자

박성배 교수가 띄우는 '항상 밝은 삶'의 지혜... '나의 발견'이 부처님 오신 순간

내가 사는 뉴욕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특히 맨하탄(Manhattan)은 어찌나 붐비는지 발 들여 놓을 틈도 없다. '맨하탄에 없으면 아무 데도 없다'는 이곳 속담처럼 '없는 것이 없는 곳'이 맨하탄이다.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에서 일하고 맨하탄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 맨하탄에 한번 이변이 생겼다. 일대 정전(停電)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불아성을 자랑하던 맨하탄에 전기가 나가자, 천지는 일시에 암흑으로 변했고, 맨하탄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어두운 밤이면 날뛰는 도깨비귀신 같은 범죄자들이 각종의 범죄를 자행했다. 범죄자들은 남의 눈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경찰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다가 불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범죄자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하탄에 불나기듯 캄캄해질 때가 있다. 무엇을 두고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무법천지의 어둠속에서 홀로 신음할 때가 많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어둠의 근원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비유한다. 태양이 떠오르자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해는 지고 어둠은 다시 찾아온다. 맨하탄에 전기불도 언제 또 나갈지 모른다. 태양은 천지와 더불어 영원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건가. 어둠은 또다시 찾아오니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맨하탄의 전기불이든 하늘의 태양이든 모두가 비유다. 우리는 그러한 비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어야겠다. 전기불과 태양은 '있고, 없고'에 차이가 있지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있고, 없고'에 차별이 나지 않는다. 심지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안 오시고'에도 상관없이 항상 그렇게 밝아있다.

부처님의 밝음과 태양의 빛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태양은 어둠을 영원히 쫓아내지 못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밝음은 다르다. 부처님의 밝음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단절이 없다. 이 밝은 밝음만 있고 어둠은 없다는 말이다. 밝은 어둠은 그런 것엔 관계없이 항상 밝다는 말이다.

부처님은 어디에 오셨는가?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2500여년전 인도에서 어린 부처님이 탄생했다. 그 어린이가 산전수전 다 겪고 30이 넘어 크게 깨쳤다. 그러나 부처님의 탄생도 부처님의 깨침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떠나서 그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건강하든 병들어 신음하든, 일이 잘 풀리든 말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뚜렷이 밝아있는 부처님의 밝음을 바로 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떠돌아도 '도로 아미타불'이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환호하고 찬탄하는 일이 '작심삼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왜 작심삼일 현상이 일어나는가? 결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과 속이 다르면 앞과 뒤도 맞지 않게 되어있다. 앞뒤도 안 맞고 결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환호하고 찬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처님은 그런 사람의 환호와 찬탄을 반기실 리 없다.

문제는 어떻게 결과 속이 일치하고 앞과 뒤가 일치하게 되느냐에 있다. 그래서 불제자들은 이 좋은 날에 참회를 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발원을 한다. 부처님의 오심은 내가 나를 발견함이다.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이다. 몸이 없으면 천하의 별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은 천하방정 가진 짓을 멋대로 다 하지만 몸은 항상 우주적 질서와 함께 있다. '몸의 발견'은 곧 '진정한 나의 발견'이며 또한 '부처님의 발견'이다.

마음의 병 고치지 않으면 죽을 뿐
 우리 불교인들은 오랫동안 잘못된 마음 문화에 병들어 왔다. 마음 심(心)자 밑에 임금 왕(王)자를 붙여 마음을 '심왕(心王)이라 부르는 것이 탈선의 발단이다. '사람에게 마음보다 더 중요한 어디 있느냐'고 힐문하면 말문이 막힌다. 마음의 중요성은 누구나 날마다 통절히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천지(天地: 하늘과 땅)이라 부르기도

했고, '자연'이니 '우주'니 별별 이름을 다 붙여 그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이 알량하고도 작은 마음이 자연과 우주와 천지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탈선을 잘 하기 때문이었으리라. 심왕론(心王論: 마음은 임금이라는 주장)은 한때 설득력이 있었다. 군왕중심의 독재시대가 아닌 오늘날은 대통령 보다는 백성이 더 중요하다. 물론 오늘날도 대통령은 중요하다. 누가 그걸 모를까. 그러나 그의 할 일은 백성을 보살피는 일이다. 백성에게 군림하는 임금이 아니다. 백성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대통령 노릇을 하려 들면 몸이 망가진다. 몸이 몸 노릇을 제대로 하도록 돕는 일이 마음의 역할이며 미션(mission)이다. 한 마디로 무심(無心)이어야 한다. 해능(683-713)의 단경을 다시 읽어 보자. '무심'이 될 때 몸은 가장 편안하다 하지 않던가.

부처님 만나러 가세
 부처님 오셨네. 부처님 만나러 가세.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함께 부처님 뵈러 가세.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 눈에 부처님이 보이지 않네. 큰절 받당에 금을 칠한 불상을 보고 모두들 부처님이라고 야단이지만 내 눈에 그가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네.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다시 보아도 그건 금을 칠한 불상일 뿐, 내가 만나 보고 싶은 부처님은 아니네. 아,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도 답답해서 지나가는 어린 동자스님에게 물어 보았다. '부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동자스님 말씀은 '당신이 바로 부처님'이라며 씩 웃고 그냥 저리로 가버린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옳았다. 나는 그동안 부처님을 밖에서 찾고 있었다.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그리고 진정 내가 부처님이라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부처님이란 말이다. 해야 뜨든 말든, 전기가 나가든 말든 이 진리가 별할 수가 없다.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다. 그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모두 부처님으로 받들고 코가 땅에 닿게 큰절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 이 이상의 환희가 또 어디에 있으랴! 부처님, 감사합니다.

박성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학 불교학과 교수
 동국대 철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동국대 불교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생 수 dozen 설립 지도 교수, 성철스님 문화에서 참선 수행,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 공부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교 교수 및 한국학연구소장,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봉축 특집 64면 지면 안내

A	불교, 통섭을 말하다	6-7면
	종단 지도자 봉축 범위	14-15면
	영화배우 김태연의 '인연 이야기'	13면
	선지식을 찾아서 성수 스님	17-18면
	월정사 수행학림 현장	18면
	문태준 시인 칼럼 '어머니와 시골절'	25면
	사하촌 기행 '강화 전등사'	29면
B	좌담, 봉축행사 틀을 바꾸자	2-3면
	보원 스님의 출가와 불사 이야기	4면
	김준성 이수그룹 회장의 불심과 경영철학	6면
	세계 티베트 지원단체 국제회의의 현장	7면
	문형렬 동화 '1cm 큰스님'	13면
	종립학교 이사장들의 청소년 포교 비전	14면
	도반의 향기 '김영로씨 부부'	15면
	초조대장경 전산화를 통해 보는 고려대장경	16-17면
	용하 스님의 티베트 기행	26-27면

혜철 스님과 함께 가는 중국 성지 명승 순례

현대불교신문사와 격린여행사가 주관하는 중국 성지순례를 '선남 선녀 인연맺기'를 이르고 있는 육천 대장사 주지 혜철 스님의 안내로 떠납니다. 중국 최고의 명승지 장가계와 남보타사, 천년고찰 개원사, 법천사 등지로 떠나는 성지 명승 순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격린여행사
- 일시: 6월 1일(금)-6월 6일(수) <5박6일>
- 일정: 장가계, 원가계, 하문 남보타사, 개원사, 법천사
- 가격: 84만9천원(비자수수료 포함)
- 문의: 격린여행사 02)778-9338(담당: 임수연, 안경아)

선무도
 선체조 / 선요가 / 선요술 / 선기공 / 선무술
 선무도 전국지부
 경부 흥원회 공광서 및 협회 05)4744-1689, 05)4742-1605 www.sunmudo.com
 서울: 02)763-2980
 송파: 02)943-488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80-3727
 인천: 03)2541-6301 | 부산: 03)1624-5655
 안산: 03)1475-2900 | 광주: 04)3295-1792
 대구: 05)3625-0718 | 포항: 054)275-6069
 울산: 052)276-6271 | 양산: 055)382-5074
 부산: 051)524-1600 | 수원: 051)464-1380
 고양: 051)615-8283 | 시흥: 051)818-0166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

종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총무원장	지 관
중앙총회의의장	자 승	교육원장	청 화
호 계 원 장	법 등	포교원장	혜 총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551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